

Mission Nicaragua

DECEMBER 2025

Merry Christmas & Happy New Year

“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
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
평화로다.” (눅 1:35)



(2025 년 10 월 세례식, 클라우디아 자매에게)

세례식 - 지난 10 월 19 일 주일, 저희 사역지에
서 가까운 **힐로아지역**에 있는 호수에서 귀한 세례
식 (침례식)이 거행되었습니다. **한 영혼이 예수님**
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
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시
고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직
접 눈으로 보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. 이번 세
례식에서 **클라우디아 자매**와 **에이네르 형제**가 믿
음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축복
을 받았습니다. 두 형제 자매가 앞으로 흔들리지
않는 믿음 안에 서서,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
복된 삶을 걸어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
다. **놀이터** -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
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
아이들 놀이터일 것입니다. 그 모습을 볼 때마다



(2025 년 10 월 세례식, 에이네르 형제에게)

저는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떠 올
립니다. 작은 즐거움에도 감사하며 웃는 아이들을
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느낍니다. 남은 시소와
안전을 위한 바닥공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되도
록 기도 해 주세요. **결혼식** - 이번에 세례를 받은
에이네르 형제가 우리 어린이 합창단 출신인 프란
시스 자매와 결혼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
을 세우기로 결단했습니다. 중남미 니카라과에서는
혼인 신고 없이 함께 사는 경우가 많지만 두 사람



(라마나웃 크리스천 스쿨-놀이터에서 유치원아이들과)



(결혼식-에이네르 와 프란시스 결혼식)

은 주님 안에서 올바른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선택했습니다. 앞으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고 복되게 쓰임 받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 **사랑의 집짓기 운동** - 이번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대상자는 우리 생명수교회의 성도이신 **쏘꼬로 할머니**입니다. 사랑이 많은 할머니이지만 몇 년 전부터 집이 거의 무너져 비가 오면 빗물이 새어 누워 잘 곳조차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교 동역자 권사님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열어 주셔서 할머니의 집을 수리해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. 쏘꼬로 할머니의 삶에 하



(사랑의집짓기 운동-“쏘꼬로” 할머니집)



(2025 년 유치원생과 6 학년 졸업식)

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 합니다. **졸업식**- 주님의 은혜로 올해 저희 사역지에서는 여섯번째 유치원 졸업생들과 초등학교 졸업생을 기쁨으로 배출했습니다. **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후원** 속에서 자라난 **6 학년 졸업생** 아이들은 이번 졸업식에서 **잠언 1-14 장**을 모두 암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. 앞으로 저희 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**잠언 31 장** 전체를 암송하는 **말씀의 제자들을 세우는 비전**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.

“주의 말씀은 내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.”

(시 119:105)의 약속이 모든 졸업생들의 앞날을 비추길 소망합니다. 또한 **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중, 고등학교 인가 퍼밋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**. 모든 것이 동역자님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은혜라 믿습니다. 늘 함께해 주시는 사랑과 끊임 없는 중보기도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. **마지막으로 성탄의 계절에 니카라과 선교 동역자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.**

기도제목

1. 생명수교회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
2. 라마나웃학교에 건축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이 이어지도록
3. 이곳 니카라과에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
4. 선교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

니카라과 선교사 김민선 신유선, 하민, 영민 드림